

▶ 의생활

영상물 「장희빈」 복식에 관한 연구

- 주인공 장희빈을 중심으로 -

조 미 숙*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학전공 박사)

김 은 정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교수)

본 연구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영상산업이 세계화되는 시점에서, 영상물 「장희빈」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장희빈의 궁중복식을 대상으로, 복식사적 고찰을 통하여 영상물에 고증된 복식이 시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올바른 것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구명(究明)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약 40여년에 걸친 사극의상의 흐름과 고증변화를 밝혀내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화의상관련의 서적과 논문 및 장희빈에 관한 기록이 담긴 고문헌을 고찰하였고, 다음으로 비디오와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여 시대별로 제작된 장희빈의 복식을 알아보았다. 숙종대 궁중복식은 유물 및 문헌을 통해 고찰하여, 영상물에 고증된 장희빈의 복식과 숙종대 궁중복식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밝히고자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첫째, 영상물 「장희빈」은 숙종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영상물에 고증된 의상은 숙종대 궁중복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형태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후기작으로 올수록 고증의 비중이 증대하였고, 훨씬 더 고증에 가까운 전통복식이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영상물에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복식형태를 볼 수 있었는데, 영상물 제작에 있어 시대성을 반영하지 않는 복식의 형태와 디자인의 무분별한 변형은 시청자들에게 가장 혼란을 주는 부분이므로, 앞으로 복식제작에 있어 각 시대에 일치하는 복식형태가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색은 영상에 표현되어 질 때 가장 확실한 화면효과를 주는 시각적 요소이며, 문양 또한 궁중복식을 표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영상물에서는 전통적인 색과 문양 이외에도 다양한 색과 문양을 선보이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는 색과 문양을 통하여 화려한 영상미와 색채미를 추구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전통색만으로 화면이 구성된다면, 자칫 지루해 보일 수 있고 자극적이고 화려함을 좇는 현대인의 미적 감각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숙종시대 궁중복식에 있어 색과 문양은 계급에 따라 정해져 있었으므로, 고증적 측면에서 본다면 신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색과 문양의 사용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숙종시대 궁중복식은 엄격히 제한되어 신분은 물론 때와 장소에 맞게 착용하였다. 초기의 영화에서는 평상시에 원삼을 입고 침소에서 소례복인 당의를 착용하는 등 상황에 맞지 않는 예를 볼 수 있었으나, 후기작으로 올수록 때와 장소에 맞게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고증적 완성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영상물에 표현된 한국복식에 관한 연구는 고증을 위한 순수한 학술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큰 의미를 지니며, 영상물 복식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리라 본다.